<보기>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. 심리 요법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‘기억 재응고화’는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,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원리이다.

① ‘낙인’과도 같은 유년의 기억을 성인이 되어서도 떨쳐 버리지 못했다는 고백에 비추어 보면, 응고된 기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.

② ‘죄악감과 불길한 예감’을 유발한 동인을 추적해 보면, ‘아버지’에 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음으로써 ‘나’의 심리적 불안정이 비롯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겠군.

③ ‘줄 묶음’을 ‘내던지’는 ‘노인’의 행위와 ‘물 사발’을 올리는 ‘어머니’의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부분을 보면, ‘나’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겠군.

④ ‘모래밭’에서의 ‘어머니’ 형상과 ‘사내의 환영’이 어우러지는 장면에서, ‘아버지’에 대해 굳어져 있던 기억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할 수 있겠군.

⑤ ‘아버지’에 대한 이미지가 ‘유해’에 대응되면서 ‘나’의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면, 부정적인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 가는 경위를 엿볼 수 있겠군.